『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권8, 04:11-05:17 부분을 중심으로-

박진호**

요 약

이 글은 점토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8의 전체적인 텍스트 구조를 개괄하고, 그 중 04:11-05:17 부분의 잠정적인 해독안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은 유가사(瑜伽師)가 수행해야 할 것들을 17지(地)로 나누어 설명한 책으로서 전체 100권으로 되어 있다. 제4권부터 제10권까지는 17지 중 제3지인 유심유사지(有尋有伺地), 제4지인 무심유사지(無尋有伺地), 제5지인 무심무사지(無尋無伺地)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생건립(生建立), 자체건립(自體建立), 인연과건립(因緣果建立), 상시설건립(相施設建立), 여리작의시설건립(如理作意施設建立) 등 '……건립' 하는 식으로 소항목을 설정하여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권8은 잡염시설건립(雜染施設建立)에 대한 내용이다.

雜染施設建立은 ㉠煩惱雜染, ㉡業雜染, ㉢生雜染의 三種雜染으로 말미암는다. 또한 각각의 雜染은 ①自性, ②分別, ③因, ④位, ⑤門, ⑥

---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3.3.29. 및 4.26.)에서 배포한 강독 요지문을 간추린 것이다.

** 한국어세계화재단 연구원

上品, ⑦顚倒攝, ⑧差別, ⑨過失의 9가지 연고로 말미암는다. 이 두 가지 원인을 조합하면 3×9=27가지가 된다. 권8의 전반부는 ㉠煩惱雜染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業雜染의 앞부분에 해당한다.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張次와 行次는 다음과 같다.

<㉠煩惱雜染>
㉠①煩惱自性 01:14-01:16
㉠②煩惱分別 01:17-04:16
㉠③煩惱因 04:17-05:02
㉠④煩惱位 05:03-05:07
㉠⑤煩惱門 05:08-05:17
㉠⑥煩惱上品 05:18-06:07
㉠⑦煩惱顚倒攝 06:08-06:23
㉠⑧煩惱差別 07:01-08:22
㉠⑨煩惱過失 08:22-09:12

<㉡業雜染>
㉡①業自性 09:18-09-20
㉡②業分別 09:21-20:20
㉡③業因 20:21-21:01
㉡④業位 21:02-21:15
㉡⑤業門 09:01:05-...
㉡⑥業上品
㉡⑦業顚倒攝
㉡⑧業差別
㉡⑨業過失

<㉢生雜染>
㉢生自性

㉢生分別

.....

이 세부 항목들 중 ㉠②煩惱分別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므로, 그 내부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煩惱分別을 혹 1종으로 나누기도 하고 혹 2종으로 나누기도 하고 …… 이런 식으로 혹 128종으로 나누기도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그 다음에 十二種諦에 대한 설명과 十二種諦와 十種煩惱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十種煩惱가 하나하나 제시된다. 그 세부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張次/行次는 다음과 같다.

㉠②煩惱分別(01:17-04:16)의 내부 구조

或立一種	01:17-18
或分二種	01:18-19
或分三種	01:19
或分四種	01:20-21
或分五種	01:21-02:01
或分六種	02:01
或分七種	02:02-04
或分八種	02:04-06
或分九種	02:06-08
或分十種	02:08-10
或分一百二十八煩惱 = 十種煩惱 × 十二種諦	02:11-12
十二種諦	02:13-18
[三界(欲界,色界,無色界) × 四諦(苦諦,集諦,滅諦,道諦) = 十二種諦]	
十二種諦와 十種煩惱의 관계	02:18-03:04
欲界: 四諦 × 十煩惱 = 40	02:18-20
色界: 四諦 × 九煩惱 = 36	02:20-21

無色界: 四諦 × 九煩惱 = 36	02:22
소계 112 번뇌 = 見道所斷	
欲界 對治修: 十煩惱 - 4 = 6	02:22-03:01
色界 對治修: 六煩惱 - 1 = 5	03:01-02
無色界 對治修: 六煩惱 - 1 = 5	03:02-03
소계 16 번뇌 = 修道所斷	
합계 128 번뇌	

<十種煩惱>

①薩迦耶見	03:04-07
②邊執見	03:08-11
③邪見	03:12-14
④見取	03:15-19
⑤戒禁取	03:19-04:01
⑥貪	04:01-05
⑦恚	04:05-08
⑧慢	04:08-11
⑨無明	04:11-14
⑩疑	04:14-16

권8의 후반부에서는 ㉡②業分別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09:21-20:20)을 차지하고 있다. 業分別은 [1]補特伽羅相差別, [2]法相差別의 2종 차별로 말미암으며, 또한 이 두 차별에는 10가지 善業道·不善業道가 있다: ①(離)殺生, ②(離)不與取, ③(離)欲邪行, ④(離)妄語, ⑤(離)離間語, ⑥(離)麤惡語, ⑦(離)綺語, ⑧(離)貪欲, ⑨(離)瞋恚, ⑩(離)邪見. 2종 차별과 20가지 業道를 조합하면 40가지가 된다. 이 40개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張次/行次는 다음과 같다.

㉡②業分別(09:21-20:20)의 내부 구조

[1]①殺生 10:06-11:05
[1]②不與取 11:06-12:08
[1]③欲邪行 12:09-13:07
[1]④妄語 13:08-13:19
[1]⑤離間語 13:20-14:08
[1]⑥麤惡語 14:09-15:12
[1]⑦綺語 15:13-16:03
[1]⑧貪欲 16:04-16:10
[1]⑨瞋恚 16:11-16:17
[1]⑩邪見 16:18-18:04

[1] 離--- 18:05-19:04

[2]①殺生 19:06-19:08
[2]②不與取 19:09-19:11
[2]③欲邪行 19:11-19:14
[2]④妄語 19:15-19:17
[2]⑤離間語 19:17-19:20
[2]⑥麤惡語 19:20-19:23
[2]⑦綺語 19:23-20:02
[2]⑧貪欲 20:03-20:05
[2]⑨瞋恚 20:06-20:08
[2]⑩邪見 20:08-20:11

[2] 離--- 20:11-20:18

본고에서 해독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②煩惱分別 중 <十種煩惱>의 9번째인 無明(04:11-14)과 10번째인 疑(04:14-16), 그리고 ㉠③煩

惱因(04:17-05:02), ㉠④煩惱位(05:03-05:07), ㉠⑤煩惱門(05:08-05:17)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독안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A-E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해독안을 제시한다.

A: 한문 원문 및 원문의 각 한자에 현토된 점토의 위치 및 형태
B: A의 각 점토를 자토로 轉字한 것
C: 어순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생략된 토를 보충하여 자토(字吐) 석독구결(釋讀口訣)의 형식으로 복원한 것
D: C를 현대어로 직역한 것
E: 해당 원문에 대한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번역

해독안

<유가08 04:11-14>

A: 無明[51(·)]者[23~33(·)]謂由親近[2자합부-역독선]不善丈夫[34(·),35(·)]聞非正法[34(·),35(·)]不如理作意[35(·),45(/),24(·),43(·)]故[55(·)]及由任運失念[45(/),24(·),43(·)]故[21(·)?]於所知事[44(·),15~24(/),=42(·)]若分別[31(·)]不分別[31(·),42(·)]染汙无知[34(·),구결자(乙)]爲體[24(·),55(.·)]

B: 無明[ㅣ]者[ㅅㄱ]謂由親近不善丈夫[乙,ㅋ]聞非正法[乙,ㅋ]不如理作意[ㅋ,xㅅ乙,ㅔ,ㅱ]故[ㅀ]及由任運失念[xㅅ乙,ㅔ,ㅱ]故[ㄴ]於所知事[十,ㅅ个,七]若分別[人]不分別[人,七]染汙无知[乙]爲體[ㅔ,ㅅ孑ㅀ?]

C: 無明(ㅐ)ㅣ{者}(ㅅㄱ)ㅅㄱ 謂 不善丈夫乙 親近(ㅅ)ㅋ 非正法乙 聞ㅋ 不如理作意(ㅅ)ㅋxㅅ乙 由ㅔ(ㄱ)ㅱ{故}ㅀ 及 任運失念xㅅ乙 由ㅔ(ㄱ)ㅱ{故}ㄴ {於}所知事十ㅅ个七 若 分別人 不分別人七 染汙无知乙 體 {爲}ㅔㅅ孑ㅀ

D: 無明이라고 하는 것은 즉 不善丈夫를 가까이하고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함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任運失念함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所知事에 있어서의 分別과 不分別의 染汙无知를 體로 삼으며

E: 무명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않은 뜻지음과 저절로 기억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는 바의 일에 대하여서이니 분별과 분별 아닌 염오의 앎이 없음이 바탕이 된다.

<유가08 04:14-16>

A: 疑[51(·)]者[23~33(·)]謂由親近不善丈夫[34(·),35(·)]聞非正法[34(·),35(·)]不如理作意[35(·),45(/),24(·),43(·)]故[21(·)]卽於所知事[44(·),+53(/),경계선]唯[32~42(·)]用[역독선]分別異覺[34(·),24(·)]爲體[24(·),51(.·)]

B: 疑[ㅣ]者[ㅅㄱ]謂由親近不善丈夫[乙,ㅎ]聞非正法[乙,ㅎ]不如理作意[ㅎ,xㅅ乙,ㅕ,ㅱ]故[ノ]卽於所知事[十,x亠]唯[ハ]用分別異覺[乙,ㅕ]爲體[ㅕ,ンオㅣ?]

C: 疑(ㅢ)ㅣ{者}(ンㄱ)ㅅㄱ 謂 不善丈夫乙 親近(ン)ㅎ 非正法乙 聞ㅎ 不如理作意(ン)ㅎxㅅ乙 由]ㅕ(ㄱ)ㅱ{故}ノ 卽 {於}所知事十x亠 唯ハ 分別異覺乙 {用}ㅕ 體 {爲}ㅕンオㅣ

D: 疑라고 하는 것은 즉 不善丈夫를 가까이하고 非正法을 듣고 不如理作意하고 함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곧 所知事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 오직 分別異覺으로써 體를 삼는다.

E: 의심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을 친근하여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듣고서 짓는 이치답지 못한 뜻지음으로 말미암아 곧 아는 바의 일에 대하여서이니 분별하는 다른 생각만이 바탕이 된다.

<유가08 04:17>

A: 煩惱因[51(·)]者[23~33(·)]謂六種因[51(·)]

B: 煩惱因[ㅣ]者[ㅅㄱ]謂六種因[ㅣ]

C: 煩惱因(ㅢ)ㅣ{者}(ㅺㄱ)ㅅㄱ 謂 六種因(ㅢ)ㅣ

D: 煩惱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섯 가지 원인이다.

E: 번뇌의 원인이라 함은 여섯 가지의 원인이니,

<유가08 04:17-19>

A: 一由所依[34(·),24(·)?,43(·)]故[55(·)?] 二由所緣故 三由親近故[55(·)] 四由邪教故[55(·)] 五由數習故[55(·)] 六由[역독선]作意[34(·),24(·),43(·)]故[53(·)]

B: 一由所依[ㄹ,ᄼ,ᄭ]故[ᄀᆞ] 二由所緣故 三由親近故[ᄀᆞ] 四由邪教故[ᄀᆞ] 五由數習故[ᄀᆞ] 六由作意[ㄹ,ᄼ,ᄭ]故[ᄂᆞᆫ]

C: 一 所依ㄹ 由ᄼ(ㄱ)ᄭ{故}ᄀᆞ 二 所緣(ㄹ) 由(ᄼㄱᄭ)故(ᄀᆞ) 三 親近(ㄹ) 由(ᄼㄱᄭ){故}ᄀᆞ 四 邪教(ㄹ) 由(ᄼㄱᄭ){故}ᄀᆞ 五 數習(ㄹ) 由(ᄼㄱᄭ){故}ᄀᆞ 六 作意ㄹ 由ᄼ(ㄱ)ᄭ{故}ᄂᆞᆫ

D: 첫째 所依를 말미암은 까닭이며, 둘째 所緣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셋째 親近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넷째 邪教를 말미암은 까닭이며, 다섯째 數習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여섯째 作意를 말미암은 까닭이니

E: 첫째는 의지하는 바로 말미암아서요, 둘째는 반연하는 바로 말미암아서요, 셋째는 친히 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넷째는 사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요, 다섯째는 자주 익힘으로 말미암아서요, 여섯째는 뜻지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니,

<유가08 04:19-20>

A: 由[역독선]此六因[34(·),22(·)]起諸{13(·)}煩惱[34(·),51(.·)#51(··)]

B: 由此六因[乙,ㅋ]起諸煩惱[乙,ㅅ干ㅣ?]

C: 此 六因乙 由ㅋ 諸 煩惱乙 起ㅅ干ㅣ

D: 이 여섯 가지 원인을 말미암아 번뇌를 일으킨다.

E: 이 여섯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번뇌가 일어난다.

<유가08 04:20-21>

A: 所依[43(·)]故[51(·)?]者[23~33(·)?]謂由隨眠[34(·),22(·)]起諸煩惱[34(·),15~25(/),55(·)]{44(·)}[1]

B: 所依[ㅠ]故[ㅣ]者[ㅅㄱ]謂由隨眠[乙,ㅋ]起諸煩惱[乙,ㅅ尸矣[2],分]

C: 所依ㅠ{故}ㅣ{者}(ㅅㄱ)ㅅㄱ 謂 隨眠乙 由ㅋ 諸煩惱乙 起ㅅ尸矣分

D: 所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즉 隨眠을 말미암아 모든 煩惱를 일으키는 것이며

E: 의지하는 바 때문이라 함은 수면으로 말미암아 모든 번뇌가 일어남을 말함이요,

<유가08 04:21>

A: 所緣[43(·)]故[51(·)]者[23~33(·)]謂順煩惱[44(·),33(/)]境[22~32(·)][3] 界現[15~25(/),55(·)]前[지시선]

B: 所緣[ㅠ]故[ㅣ]者[ㅅㄱ]謂順煩惱[十,ㅅㄱ]境[ㅛ]界現[ㅅ尸矣,分]前

C: 所緣ㅠ{故}ㅣ{者}(ㅅㄱ)ㅅㄱ 謂 煩惱十 順ㅅㄱ 境界ㅛ 現前ㅅ尸矣分

---

1) 이 점의 위치를 '44'로 파악하면 '十'에 대응되는데 해독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위치를 '34~44'로 보아 '火'으로 해독할 가능성도 있다.

2) '15~25(/)'은 'ㅅㄱ矣'로 읽을 가능성도 있다.

3) 바로 다음의 '界'자에 붙어야 할 것이 '境'자에 잘못 붙은 것으로 보인다.

D: 所緣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즉 煩惱에 따르는 境界가 現前하는 것이며

E: 반연하는 바 때문이라 함은 번뇌를 따르는 경계가 앞에 나타남을 말함이요,

<유가08 04:22>

A: 親近[43(·)]故[51(·)]者[23~33(/)]謂由[역독선]隨學[2자합부-역독선]不善丈夫[34(·),45(/),22(·),15~25(/),55(·)?[4)]]

B: 親近[ㅟ]故[ㅣ]者[ㅅㄱㅅㄱ]謂由隨學不善丈夫[乙,x入乙,ㅋ,ㅅ尸矣,分]

C: 親近ㅟ{故}ㅣ{者}ㅅㄱㅅㄱ 謂 不善丈夫乙 隨學x入乙 由ㅋㅅ尸矣分

D: 親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즉 不善丈夫를 隨學함을 말미암아 하는 것이며

E: 친히 하고 가까이 함 때문이라 함은 착하지 못한 사람에게 따라 배움을 말함이요,

<유가08 04:22-23>

A: 邪教[43(·)]故[51(·)]者[23~33(/)]謂由[역독선]聞[역독선]非正法[34(·),45(/),22(·),15~25(/),55(·),구결자(乙)]

B: 邪教[ㅟ]故[ㅣ]者[ㅅㄱㅅㄱ]謂由聞非正法[乙,x入乙,ㅋ,ㅅ尸矣,分]

C: 邪教ㅟ{故}ㅣ{者}ㅅㄱㅅㄱ 謂 非正法乙 聞ㄱ入乙 由ㅋㅅ尸矣分

D: 邪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즉 非正法을 들음을 말미암아 하는 것이며

E: 사뙨 가르침 때문이라 함은 바른 법 아닌 것을 들음을 말함이요,

---

4) '分'에 대응되는 '55(·)'이 기대되는 자리인데 종이가 접혀서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유가08 04:23-05:01>

A: 數習[43(·)]故[51(·)]者[23~33(/)]謂由[역독선]先殖[33(\)]數習力勢[34(·),22(·),15~25(/),55(·)]

B: 數習[ᄭ]故[ㅣ]者[ㄴㄱㅅㄱ]謂由先殖[ㄴㄱ]數習力勢[乙,氵,ㄴ尸矢,分]

C: 數習ᄭ{故}ㅣ{者}ㄴㄱㅅㄱ 謂 先殖ㄴㄱ 數習力勢乙 由氵ㄴ尸矢分

D: 數習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즉 먼저 키운 數習力勢를 말미암아 하는 것이며

E: 자주 익힘 때문이라 함은 먼저 심어서 자주 익히는 세력임을 말함이요,

<유가08 05:01-02>

A: 作意[43(·)]故[51(·)]者[23~33(/)]謂由發起不如理作意[34(·),45(/)24(·),43(·)]故[21(·)]諸煩惱[22~32(·)]生[15~25(/),51(·)]

B: 作意[ᄭ]故[ㅣ]者[ㄴㄱㅅㄱ]謂由發起不如理作意[乙,xㅅ乙,氵,ᄭ]故[ㄴ]諸煩惱[ㅣ]生[尸矢,ㅣ]

C: 作意ᄭ{故}ㅣ{者}ㄴㄱㅅㄱ 謂 不如理作意乙 發起xㅅ乙 由氵(ㄱ)ᄭ{故}ㄴ 諸煩惱ㅣ 生ㄴ尸矢ㅣ

D: 作意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즉 不如理作意를 發起함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모든 煩惱가 생기는 것이다.

E: 뜻지음 때문이라 함은 이치답지 못한 뜻지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번뇌가 일어남을 말한다.

<유가08 05:03-05>

A: 煩惱位[51(·)]者[23~33(·)]略[33~34(·)]有七種[51(·)] 一隨眠位[31(·)] 二纏位 三分別起位[31(·)] 四俱生位[31(·)] 五奧位

[31(·)] 六中位[31(·)] 七上位[51(·)]

B: 煩惱位[ㅣ]者[ㅅㄱ]略[ㅁㄱ]有七種[ㅣ] 一隨眠位[ㅅ] 二纏位 三分別起位[ㅅ] 四俱生位[ㅅ] 五耎位[ㅅ] 六中位[ㅅ] 七上位[ㅣ]

C: 煩惱位(ㅢ)ㅣ{者}(ㅅㄱ)ㅅㄱ 略ㅁㄱ 七種 有ㅣ 一 隨眠位ㅅ 二纏位 三 分別起位ㅅ 四 俱生位ㅅ 五 耎位ㅅ 六 中位ㅅ 七 上位(ㅅㅢ)ㅣ

D: 煩惱位라고 하는 것은 간략히 말하면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 隨眠位와 둘째 纏位와 셋째 分別起位와 넷째 俱生位와 다섯째 耎位와 여섯째 中位와 일곱째 上位이다.

E: 번뇌의 자리라 함은, 간략하게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면의 자리요, 둘째는 얽음의 자리요, 셋째는 분별기의 자리요, 넷째는 구생기의 자리요, 다섯째는 부드러움의 자리요, 여섯째는 중간의 자리요, 일곱째는 위의 자리이다.

<유가08 05:05-07>

A: 由二緣[34(·),24(·),43(·)]故[21(·)]煩惱隨眠[23(·)]之所隨眠[33(\),51(·)] 一由種子隨逐[34(·),24(·),43(·)]故[55(·)] 二由彼增上事[34(·),24(·),43(·)]故[53(·)]

B: 由二緣[ㄛ,ㅔ,ㅱ]故[ㅅ]煩惱隨眠[ㅋ]之所隨眠[ㅅㄱ,ㅣ] 一由種子隨逐[ㄛ,ㅔ,ㅱ]故[ㅿ] 二由彼增上事[ㄛ,ㅔ,ㅱ]故[ㅗ]

C: 二緣ㄛ 由ㅔ(ㄱ)ㅱ{故}ㅅ 煩惱隨眠ㅋ{之} 隨眠ㅅㄱ 所(ㅅ)ㅣ 一種子隨逐ㄛ 由ㅔ(ㄱ)ㅱ{故}ㅿ 二 彼增上事ㄛ 由ㅔ(ㄱ)ㅱ{故}ㅗ

D: 두 가지 緣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煩惱隨眠의 隨眠한 바이다. 첫째 種子隨逐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둘째 그의 增上事를 말미암은 까닭이다.

E: 두 가지의 반연으로 말미암아 번뇌의 수면이 따르면서 아득하게 하나니, 첫째는 종자로서 따르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의 더하여

줌의 일 때문이다.

<유가08 05:08-09>

A: 煩惱門[51(·)]者[23~33(·)] 略[33~34(·)] 由二門煩惱[23(·),구결자(ㅋ)] 所惱[33(\),34(·),24(·),51(·)] 謂由纏門[31(·)] 及隨眠門[31(·),34(·),22(·),=51~52(.·)]

B: 煩惱門[ㅣ]者[ㅅㄱ] 略[ㅁㄱ] 由二門煩惱[ㅋ] 所惱[ㄴㄱ,乙,ㅕ,ㅣ] 謂由纏門[人] 及隨眠門[人,乙,ㅈ,ナㅣ]

C: 煩惱門(ㄐ)ㅣ{者}(ㄴㄱ)ㅅㄱ 略ㅁㄱ 二門煩惱ㅋ 惱ㄴㄱ 所乙 由ㅕㅣ 謂 纏門人 及 隨眠門人乙 由ㅈ(ㄴ)ナㅣ

D: 煩惱門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히 말하면 二門煩惱가 괴롭히는 바를 말미암는다. 즉 纏門과 隨眠門을 말미암아 한다.

E: 번뇌의 문이라 함은, 두 가지 문의 번뇌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게 하나니, 얽음의 문과 수면의 문으로 말미암아서다.

<유가08 05:09-12>

A: 纏門[44(·)]有五種[51(·)] 一 由不寂靜[45(·)]住[35(/),=24(·),43(·)]故[55(·)] 二 由[역독선]障导[2자합부-역독선]善[34(·)?,45(/),24(·),43(·)]故[55(·)] 三 由發起惡趣[31(·)?]惡行[34(·),45(/),24(·),43(·),구결자(乙)]故[55(·)] 四 由攝受現法鄙賤[34(·),45(/),24(·),43(·)]故[55(·)] 五 由能[55(·)]感[역독선]生等[=33(/)]苦[34(·),45(/),24(·),43(·)]故[53(·)]

B: 纏門[十]有五種[ㅣ] 一 由不寂靜[ㅎ]住[ㄴㄱ乙,ㅕ,ㅟ]故[ㅀ] 二 由障导善[乙,xㅅ乙,ㅕ,ㅟ]故[ㅀ] 三 由發起惡趣[人]惡行[乙,xㅅ乙,ㅕ,ㅟ]故[ㅀ] 四 由攝受現法鄙賤[乙,xㅅ乙,ㅕ,ㅟ]故[ㅀ] 五 由能[ㅀ] 感生等[ㄴㄱ]苦[乙,xㅅ乙,ㅕ,ㅟ]故[ㅗ]

C: 纏門十 五種 有ㅣ 一 不寂靜ᄒᆞ 住ᄂᆞᆨ乙 由ᄒᆞ(ㄱ)ᄆᆞᆷ{故}ᄀᆞ 二 善乙 障导x入乙 由ᄒᆞ(ㄱ)ᄆᆞᆷ{故}ᄀᆞ 三 惡趣ㅅ 惡行乙 發起x入乙 由ᄒᆞ(ㄱ)ᄆᆞᆷ{故}ᄀᆞ 四 現法鄙賤乙 攝受x入乙 由ᄒᆞ(ㄱ)ᄆᆞᆷ{故}ᄀᆞ 五 能ᄀᆞ 生 等ᄂᆞᆨ 苦乙 感x入乙 由ᄒᆞ(ㄱ)ᄆᆞᆷ{故}ㅗ

D: 纏門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不寂靜히 住함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둘째 善을 방해함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셋째 惡趣와 惡行을 發起함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넷째 現法鄙賤을 攝受함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다섯째 능히 生 등의 苦를 感함을 말미암은 까닭이다.

E: 얽음의 문에는 다섯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고요하지 않는 데에 머무르기 때문이요, 둘째는 착함을 장애하기 때문이요, 셋째는 나쁜 갈래와 나쁜 행을 일으키기 때문이요, 넷째는 현재 법의 더럽고 천한 것을 껴잡아 들이기 때문이요, 다섯째는 나는 따위의 괴로움을 만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유가08 05:12-14>

A: 云何[34(·)]隨眠門[23(·)]所惱[33(\),51(·),15(·.)]謂與[역독선]諸纏[42(·)]作所依[=45(/)[5]]故[45(/),43(·),55(·)]及能[55(·)]引發[역독선]生等[33(/)]苦[34(·),45(/),43(·)]故[51(·)]

B: 云何[乙]隨眠門[ㅋ]所惱[ㅅᄀᆞ,ㅣ,ㅅᄉᆞㅁ]謂與諸纏[ㄴ]作所依[x入乙]故[x入乙,ᄆᆞᆷ,ᄀᆞ]及能[ᄀᆞ]引發生等[ᄂᆞᆨ]苦[乙,x入乙,ᄆᆞᆷ]故[ㅣ]

C: 云何乙 隨眠門ㅋ 惱ㅅᄀᆞ 所(ㅢ)ㅣㅅᄉᆞㅁ 謂 諸纏 與ㄴ 所依x入乙[6] {作}x入乙ᄆᆞᆷ{故}ᄀᆞ 及 能ᄀᆞ 生 等ᄂᆞᆨ 苦乙 引發ᄂᆞᆨ乙ᄆᆞᆷ

5) 이 점토의 위치는 '35'로 볼 수도 있으나, 해독을 고려하면 '45'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6) '45(/)'은 'ᄂᆞᆨㅅ乙'로 읽으면 좋을 곳이 대부분이나, 여기서는 'ㅢㄹㅅ乙'로 읽는 것이 좋아 보인다.

{故}ㅣ

D: 무엇을 隨眠門이 괴롭히는 바라고 하는가? 즉 모든 纏과 더불어 所依가 되기 때문이며 능히 生 등의 苦를 引發하기 때문이다.

E: 어떻게 수면의 문으로 괴로워하게 하느냐 하면, 모든 얽음과 함께 의지하는 바가 되기 때문이며 나는 따위의 괴로움을 끌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08 05:14-17>

A: 又由[역독선]七門[34(·),22(·)]一切煩惱[33(·)]於見[31(·)]及修[31(·),44(·)]能[55(·)]爲障导[33~43(·),34(·),33~43(\),삐침선(22,\)]應知[42(\),51(·)] 謂邪解了[43(·),경계선]故[55(·)] 不解了[43(·)]故[55(·)] 解了不解了故 邪解了迷執故 彼因[31(·)]依處[31(·),43(·)]故[55(·)] 彼怖[43(·),경계선]所生[33(/)]故[43(·),55(·)] 任運現行[43(·)]故[53(·)]

B: 又由七門[乙,ㅋ]一切煩惱[ㄱ]於見[ㅅ]及修[ㅅ,十]能[ㅁ]爲障导[卬,乙,ノㄱ卬?]應知[ノㅎヒ,ㅣ] 謂邪解了[ㅆ]故[ㅁ] 不解了[ㅆ]故[ㅁ] 解了不解了故 邪解了迷執故 彼因[ㅅ]依處[ㅅ,ㅆ]故[ㅁ] 彼怖[ㅆ] 所生[ンㄱ]故[ㅆ,ㅁ] 任運現行[ㅆ]故[ㅗ]

C: 又 七門乙 由ㅋ 一切 煩惱ㄱ {於}見ㅅ 及 修ㅅ十 能ㅁ {爲}障导卬乙ノㄱ卬 知ノㅎ{應}ヒㅣ 謂 邪解了ㅆ{故}ㅁ 不解了ㅆ{故}ㅁ 解了不解了(ㅆ){故}(ㅁ) 邪解了迷執(ㅆ){故}(ㅁ) 彼因ㅅ 依處ㅅㅆ{故}ㅁ 彼怖ㅆ 生ンㄱ 所{故}ㅆㅁ 任運現行ㅆ{故}ㅗ

D: 또 七門을 말미암아 모든 번뇌는 見과 修에 있어서 능히 장애가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①邪解了 때문이며 ②不解了 때문이며 ③解了不解了 때문이며 ④邪解了迷執 때문이며 ⑤그 因과 依處 때문이며 ⑥그 두려움으로 생기는 바 때문이며 ⑦任運現行 때문이다.

E: 또, 일곱 가지의 문으로 말미암아 온갖 번뇌는 견도와 수도에 있

어서 장애가 되는 줄 알아야 하나니, (첫째) 사뙤게 알기 때문이며, (둘째) 분명히 모르기 때문이며, (셋째)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기 때문이며, (넷째) 사뙤게 알아서 잘못 집착하기 때문이며, (다섯째) 그 원인과 의지한 데이기 때문이며, (여섯째) 그 두려움의 나는 바이기 때문이며, 일곱째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욱(2001a),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三의 口訣에 대하여」, 『제24회 共同硏究會 發表 論文集』, 口訣學會, pp.137-143.

_____(2001b),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57-77.

金永旭(2001c), 「瑜伽師地論 雙點吐의 解讀 方法 硏究」, 『第2回 國際學術大會 發表 論文集』, 口訣學會, pp.215-229.

南豊鉉 · 李丞宰 · 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pp.69-102.

李丞宰(2001),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珖鎬先生 回甲紀念論叢). 태학사, pp.229-250.

李丞宰 · 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pp.115-145.

장경준(2002a),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2.23) 발표 원고.

_____(2002b),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pp.205-225.

_____(2002c), 「구결점(口訣點)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국어사 자료 연구』 3, 국어사자료학회, pp.5-30.

_____(2003a),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pp.227-247.

_____(2003b),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指示線'에 대하여」, 『日韓 漢字·漢文 受容에 關한 國際學術會議』(資料集), pp.159-177.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342-91〕
E-mail: synpjh@hotmail.com
접수일자: 2003. 07. 10.
게재결정: 2003. 08. 02.

A Decipherment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Focusing on vol.Ⅷ, 04:11-05:17-

Park, Jin-ho

This paper surveys the overall textual structure of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vol. 8, and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

*Key words: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點吐口訣)